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사라져가는 동북아 붓 문화, 다시 새겨보다

사라져가는 한·중·일 붓 문화를 다시금 새겨보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올해는 '순수와 응용'을 주제로, 단 순히 전통서예(순수)만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여 실생활 속에 녹아나는 살아 있는 예술로 활성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사)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위원장 허진규)는 2,988명의 작가를 초대, 작품 1325점을 선보인다. 행사는 개막행사·전시행사·학술대회·부대행사·연계행사 등 총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21일 오후 2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열리는 개막공연에선 서예를 공연예술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자리를 갖는다. 이는 서예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1회성 필획의 율동성과 운동성을 바탕으로 창작되는 예술이어서 미술보다는 오히려 음악

전통서예 다양한 분야에 응용 살아있는 예술 활성화 주안점 전시·학술대회 등으로 진행

개막공연에서 공연예술로서의 가능성 타진해 보는 무대 시연 1부, 한민족 글씨의 혼 무대 2부, 한복 패션쇼 등 선보여

이나 무용 등 순간·공연예술과 흡사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

김병기 총 감독은 "서예비엔날레 역사상 처음으로 서예를 공연으로 시연해 보인다"면서 "서예와 음악, 무용 그리고 패션을 융합한 공연을 시연함으로써 서예가 공연예술로



서 재탄생 할 수 있는지를 가능해 보고자 했다"고 했다.

공연은 1부에선 순수를 주제로 한민족 글씨의 혼, 성스러운 아름다움 한글 궁체, 눈길도 함부로 건지 말라를 2부에선 한복 패션쇼-서예, 옷을 입다와 서예로 부르는 아!

대한민국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의 연출은 정진권이 맡았으며, 무용가 홍화영이 안무를, 한복연구가 설미화가 패션을 담당했다.

개막공연과 함께 2017년도 비엔날레 기념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 및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을 대상으로 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그랑프리 시상식도 진행된다.

본 행사로는 서론서예전을 비롯해 명사·생활·등불·양생서예전 그리고 전북 우수작가서예전, 전·각의 어울림전, 세계한국문화원수강생전, 태권도와 깃발전, 서예 책을 만나다전 등 10개 행사가 펼쳐진다.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한자문화를 서양에 전파하기 위해선 서예(한국), 서법(중국), 서도(일본)로 각기 다르게 불리는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나눈다. 학술대회는 22일 오전 9시부터 전주 J5호텔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관람객들에게 전하는 우리들의 일상 속 상상

전주영화제작소 기획전시실서

이호진 작가 '#1 Oh, Hi' 전시회

전주영화제작소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이호진 작가의 첫 번째 전시 '#1 Oh, Hi'가 열리고 있다.

'#1 Oh, Hi'는 지난 5년 동안 작가가 작품에 담은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콘셉트의 전시로 총 네 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 VALUE에서는 '가치'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만나

볼 수 있으며, #2 FLOWER에서는 '꽃'을 주제로 작가의 작품과 실제 꽃을 활용해 포토존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3 LANGUAGE에서는 '음악은 만국 공용어'라는 주제로 음악이 주는 메시지와 표현을 담은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마지막 #4 FIND 섹션에서는 모든 섹션을 관람한 후 관람객들이 숨은 그림 찾기를 하도록 의도한 작품 'A10TZ(서울)'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사실적이면서도 회화적인 작품들과 일상 속 상상을 표현한 작가의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며 "자연물과 사물 그리고 글자의 조화를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작가는 글자를 통해서 관객들과의 소통에 대한 갈증과 냉골을 통해 무의식의 흐름을 표현했으며, 꽃을 통해서 작가 본인 혹은 다른 대상을 표현했다"고 했다.

전시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매주 월요일 휴관). /정해은 기자



무형문화재 주간 기념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주의 무형문화재들의 숨씨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17 전주 무형문화재 주간 행사가 17일부터 전주어진박물관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전주 어진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 등에서 열린다. 이번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연 1회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종목을 공개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발전, 일반인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사진은 17일 전주어진박물관에서 열린 기념식.

국립민속국악원 다담, 25일 악당이반 김영일 대표 초대

국립민속국악원이 25일 오전 11시 예음헌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콘서트 '다담(茶談)'을 열고 한옥에서 우리 가락을 녹음해 온 악당이반 김영일 대표를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해 우리 소리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사진작가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김영일 대표는 우연히 들은 단가 한 대목에 반해 국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귀한 소리를 귀하게 담아내겠다'는 생각으로 국악전문레이블 악당이반을 창립하고 국악 녹음에 뛰어 들었다.

국악기의 소리, 판소리와 정가로 대표되는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잘 담아내는 한옥에서 풀벌레소리, 바람소리와 함께 녹음을 하며, 한 번에 녹음한 음원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음반으로 낸다.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2011년에는 '여창가곡·정가악회 3집' 음반으로 제54회 그래미 어워드(GRAMMY AWARDS) 월드뮤직 부문과 서라운드 사운드 부문에 국내 최초로 후보 진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 내에 각각의 장르와 악기에 걸맞은 녹음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스튜디오를 완공하고 최상의 음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민속국악원에서 마련하는 차와 이야기가 있는 오전의 국악콘서트 '다담(茶談)'에서는 김영일 대표가 이런 노력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우리 가락, 우리 소리의 가치란 무엇인가, 그것을 지켜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남원=유영철 기자



국악양상블 현과 함께하는 '셸 위 댄스' 21일 예음헌서

국립민속국악원 토요일국악초대석 국악타파에서는 국악양상블 현과 함께하는 'Shall We Dance'를 공연한다.

21일 오후 3시 예음헌에서 열리는 공연은 국악기와 춤의 만남으로, 라틴댄스에 맞춰 선보이는 무대다.

국악기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과 강렬한 비트로 NOLZA, 유혹에 빠지다, Waltz, 그날 밤, 빨간 드레스를 입은 그녀, Libertango, Viva Salsa! 등 총 7곡의 풍성한 연주곡들로 대중과 소통하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2012년 11월 결성된 국악양상블 현은 국립전통예술고 출신 가야금, 아쟁 전공자들로 구성된 여성3인조 그룹. 공연은 리드미컬한 타악, 다이내믹한 가야금선율, 묵직한 베이스 아쟁선율이 어우러진 반주에 맞춰 댄스 스포츠인 살사, 차차차, 블루스 등 라틴아메리카의 정열적인 댄스를 보여준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행복꿈틀

행복꿈틀은 농업인과 국민의 꿈을 키우는 틀이 되어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NH농협의 약속입니다.

신나라! 땀 흘린 농업인

농가소득 5배인한 시대를 여는 꿈을 키우는 틀

피어나라! 새로운 미래

농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꿈을 키우는 틀

함나라! 생활의 모든 순간

누구나, 어디서나 스마트한 금융으로 모두의 꿈을 키우는 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NH 농협

김제시지부 지부장 전 영길

김제농협 조합장 이정용

백산농협 조합장 강원구

용지농협 조합장 박광양

백구농협 조합장 이재희

금만농협 조합장 최승운

공덕농협 조합장 문홍길

진봉농협 조합장 노종열

동김제농협 조합장 장창호

금산농협 조합장 이민섭

광활농협 조합장 신광식

김제원예농협 조합장 박진태

동진강낙농협 조합장 김투호

전주김제원주축협 조합장 김창수